



병 동 속 보



2021년 8월 17일 화요일

<http://korea.nodong.org>

발행 / 고대의료원지부

발행인 / 노 재 옥

바꾸고 싶지 않아?! 근무환경? 간호사 파업으로 바꾸자!

결국 고대는 고대로, 8월 17일 합법적인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노동부 조정신청 접수!

5차례 본교섭을 진행 후 8월 9일부터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실무교섭을 매일 1회에 걸쳐 5차례 진행했으나 의료원은 전체 요구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내 놓았으며 임금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.

우리지부는 자율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8월 17일(수)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. 이제부터는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하며 8월 23일(월)~26일(목) 사흘간에 걸쳐 파업(쟁의행위)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.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게 되면 9월 2일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진행된다.

환자보다 환자 되는 지금,

힘들어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파업이 낫다!

지금까지 간호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괴감과 보람보다는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, 언제 그만둘지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생각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. 10년을 버텼지만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간호사들 위한 인정과 존경을 보내온 적이 있는가. 우리들끼리 의지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다독이면서 견뎌왔다. 하지만 이제 잡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근무환경이다.

이렇게 자괴감만 남은 병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뀌어내는 것이다. 환자들에게 미안하고 남아있는 동료들이 힘들겠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눈 질끈 감고 다 함께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. 그래야만 바뀌는 고대의료원이다.

8인이 함께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라면 우세할 것이 없다.

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9차례 보건복지부와 노정 교섭을 진행했다. 주요 요구로는 ▲ 교대근무 개선 ▲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▲ 간호 등급제 개선 등 지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. 2021년 9월은 지부 교섭을 통해 얼어붙은 임금인상 요구를 녹여내고 보건의료노조 산별 교섭을 통해 노후화된 근로조건을 개선해내는 싸움이 될 것이다. 이제 준비된 무대에 간호사들만 입장하면 된다. 다음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다.

1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 확충

요구안	복지부 입장
①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·시행	○ 기준마련 필요성 인정 ○ 가능한 직종부터 단계적 검토
②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민간 확대	○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시행 결과 평가가 검증되어 필요성 인정. 예산이 고민
③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의 올바른 이행	

2 불법의료 근절

요구안	복지부 입장
①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 마련	○ 상중중심 실태조사 실시
②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, 의료관계법 규정	○ 불법의료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(노조 :가이드라인 방식 수용 불가)
③ 불법의료를 근절 위한 의사인력 확충	○ 법률로 정하는 문제는 반발이 커서 어려움 예상

3 간호사 등급제 개선

요구안	복지부 입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근무조별간호사 대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 ● 간호등급차등제 S등급(1:8) 신설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배치기준 강화 ● 간호간병통합병동 5년내 단계적 확대(1년에 20%씩) -지원인력기준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력 쏠림과 비수도권 환자 수 등 환경 차이 고려 필요 ○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다. ○ 통합서비스는 잘 설계되고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적 사업이나, 상중, 수도권 확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. 인력정책은 특성상 정책을 하거나 수가를 변경시키려면 인력의 이동 등 단기적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나는데 반 해, 인력 수급 정책은 장기적 효과를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. 각각의 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어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
4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4일제 단계적 도입

요구안	복지부 입장
① 야간근무 축소 및 연속휴가 확보, floating 인력확보, 규칙적·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모델 마련, 시행	○ 교대제 개선 및 주32시간제 시행 시 간호인력 확보 문제 예상. 이직률 재고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 방식의 시범사업 검토 중
②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(주32시간제) 시행방안 마련 * 법개정, 근무형태별 적용모델, 도입방안과 경로, 인력확충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 * 2~3차 의료기관 토요진료 폐지 * 1차 의료 강화, 휴일진료체계, 응급진료체계 구축 등 의료이용체계 정비	○ 교대제 모델과 주4일제 모델까지 포함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지는 측면.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어. 방향성이 틀렸다고보다는 우선 순위를 고민해 봐야 함. 특히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측면이 큼.



전 조합원 실천 1, 2, 3!

- 1단계 실천 : 요구안 인증샷을 찍어주세요~
- 2단계 실천 : 8월 18일, 25일, 9월 1일 구호가 담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세요~
- 3단계 실천 : 9월 1일 파업 전야제 참가

8월 30일 / 31일 / 9월 1일 - N 퇴근 선전전 함께 해요!